

청사신축 계기로 도민건강증진에 더욱 힘써 달라

성정웅 사무총장, 충북지부 청사 기공식 축사 통해 당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가 지난 7월 27일 청사 증·개축을 위한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건협 성정웅 사무총장, 광동수 청원군 보건소장, 주재선 보성건설 사장, 최병선 도청보건계장, 최익현 건협 사업부장, 박철동 감사실장, 정상준 조사연구부장 등을 비롯해 건협직원, 유관기관 인사 등이 참석하여 건협 충북지부의 청사 기공식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성정웅 사무총장은 『날로 증가하는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이때, 충북지부의 청사 신축은 의미가 매우 깊다.』면서, 『청사가 신축된 이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5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인 신축 청사는 대지 300여평에 연건평 447여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각종 검사실에 최신 검진 장비를 갖추어 내원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에 더욱 크게 기여할 계획으로 있다.

도내 학생대상 건강검사 활발

건협 강원지부 도내 학생 8만 7천여명 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가 도내 학생 대상의 건강검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에 시작되어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학생건강검사는 초·중·고생 8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강원도내 고등학교 2·3년생 5만 1천여명이 소변검사를 춘천·삼척·인제·홍천·화천 지역의 초등학교 5천8백여명이 혈액형검사를 초등학교 3·6학년생과 중학교 2·3학년생 3만여명이 소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